

질병청, 의료방사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1.9%가 의료방사선의 이익은 알지만, 절반 가량은 의료방사선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 국민의 의료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방사선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의료방사선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의료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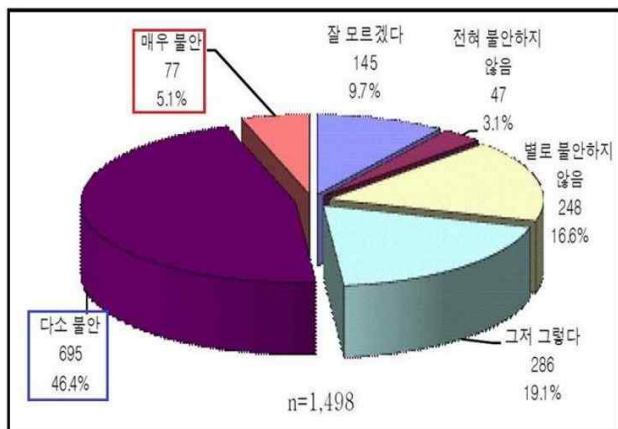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정책연구* 수행 중 온라인을 통해 전국 18세에서 69세 사이 대한민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의료방사선에 대한 이익성, 위험성, 지식, 정보제공, 관리성 등을 조사하였다.

* 국민 의료방사선 인식조사 및 홍보 콘텐츠 마련('22.4.12.~'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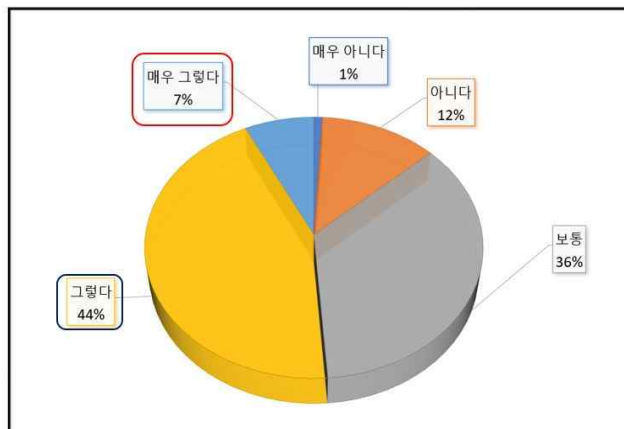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 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며(81.9%) 의료상 얻는 이득이 더 많다(62.8%)’ 등 이익성에 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방사선은 양과 관계없이 인체에 치명적(47.6%)’이라고 응답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51.2%)’ 라고 위험성을 인식하였으며, 의료방사선의 지식수준은 문항별 21.8%~52.6%가 모르거나 잘못된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의료방사선 인식조사와 비교해 볼 때, 위험성에 관한 인식 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엑스선 검사에 대한 '위해 불안감'(51.5%)
<'09년 식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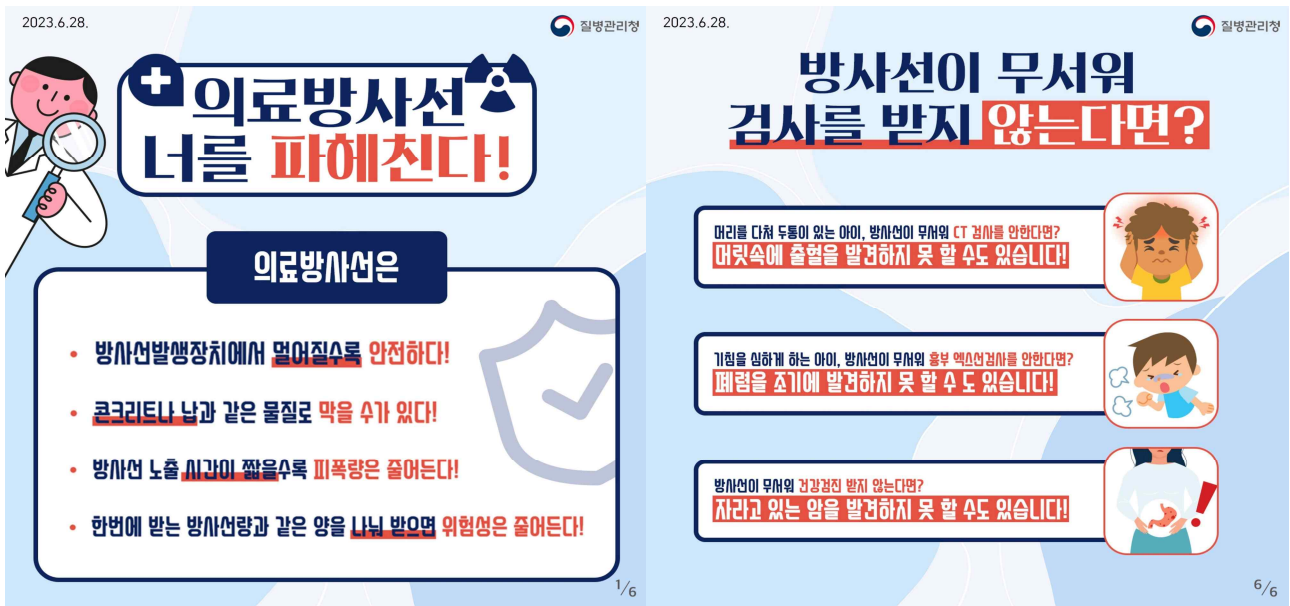


의료방사선 검사는 나중에 문제가 됨(51.2%)
<'23년 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의료방사선 검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방사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을 의료 관련 단체, 보건소 등에 배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동영상(‘아프지마 TV’), 리플렛 및 포스터(인쇄배포), 카드뉴스(질병청 누리집)



<의료방사선 바로 알기 카드뉴스>

※ 의료방사선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및 홍보물 내려 받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 <붙임> 1. 「의료방사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2. 의료방사선 대국민 홍보자료(동영상, 포스터, 리플렛,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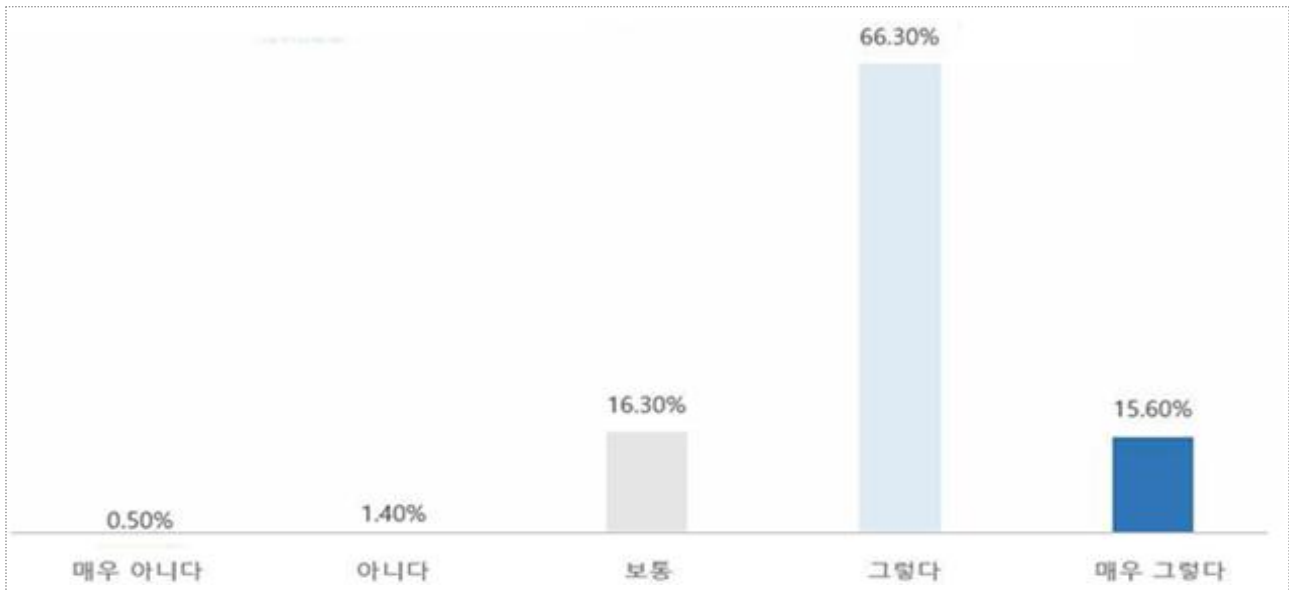
담당 부서	의료안전예방국 의료방사선과	책임자	과 장	이병영 (043-219-2870)
		담당자	연구사	길종원 (043-219-2875)

1. 의료방사선의 이익성

○ '방사선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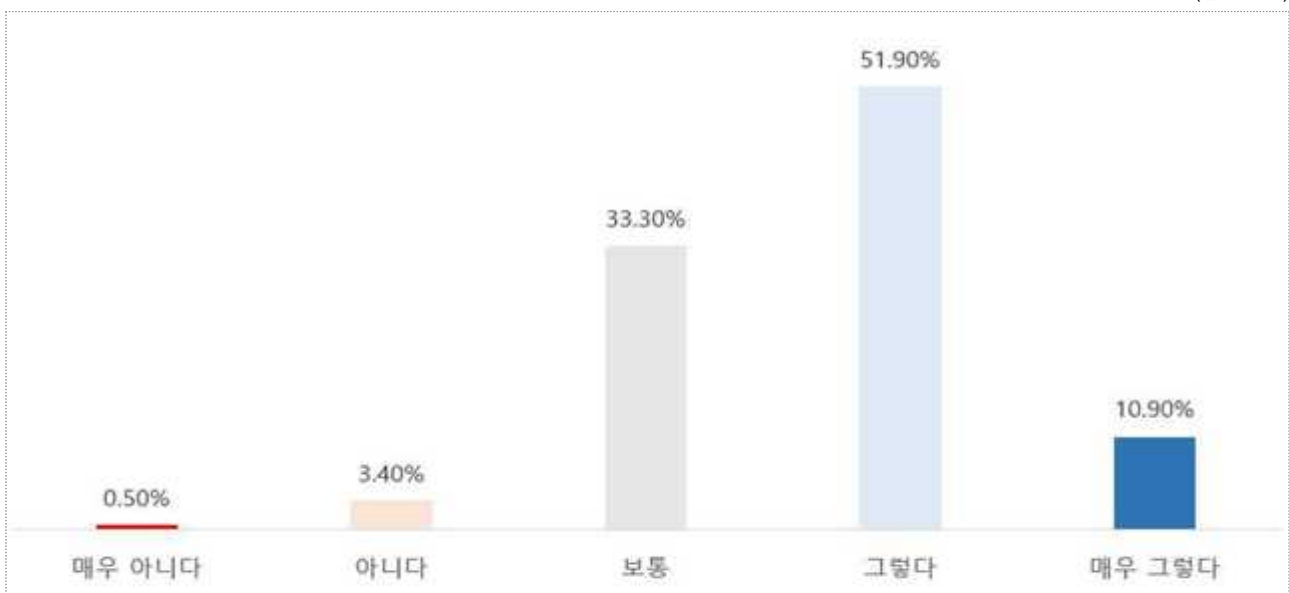
(단위 : %)



○ '방사선은 실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

☞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62.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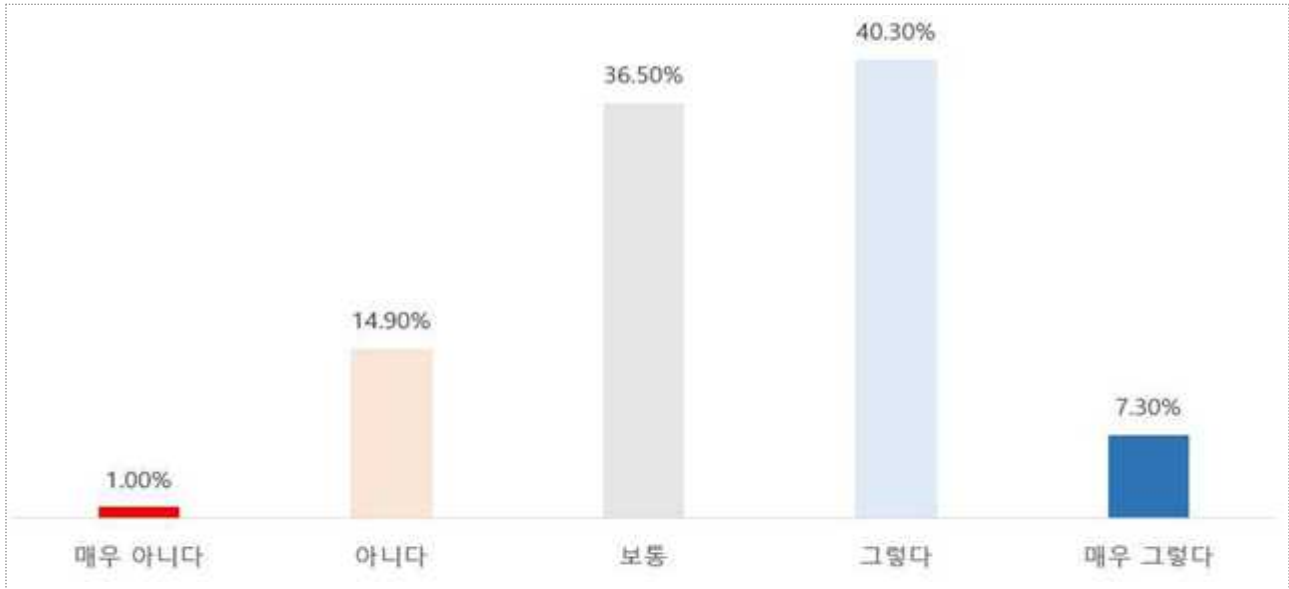


2. 의료방사선의 위험성

-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의료방사선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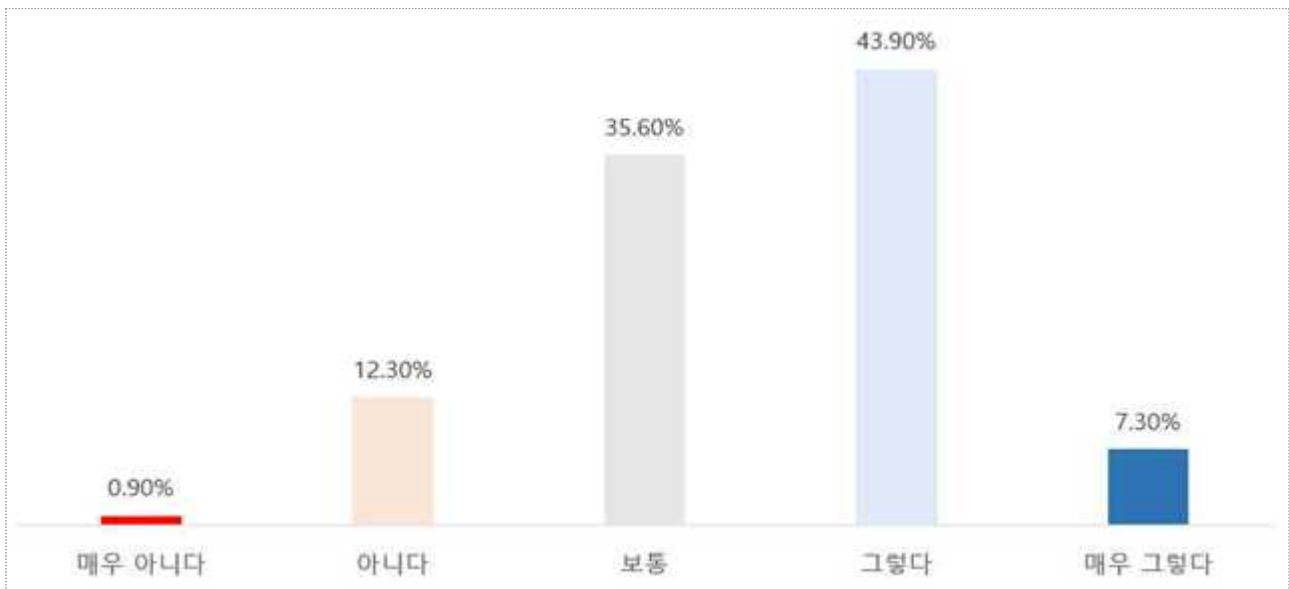
(단위 : %)



-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의료방사선을 쪼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

☞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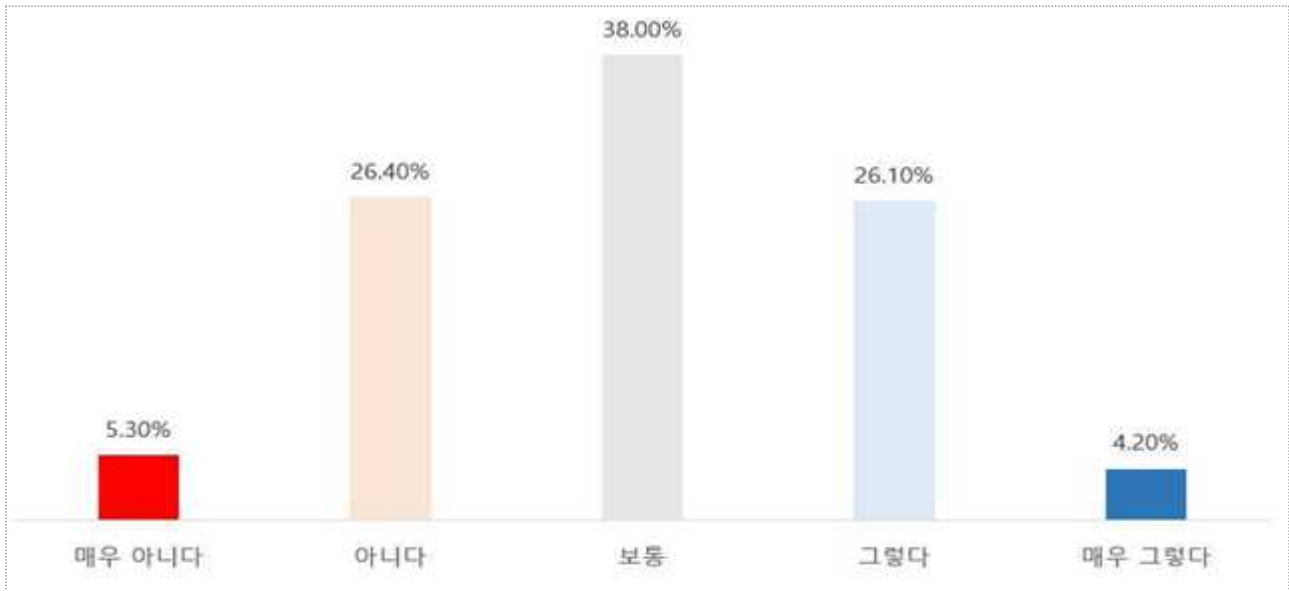
(단위 : %)



○ '방사선 검사할 때마다 방사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30.3%

(단위 : %)



3. 의료방사선의 지식

○ '의료방사선은 납 또는 콘크리트로 된 물질로 차폐가 가능하다'

☞ 아니다 또는 모른다 41.1%

○ '의료방사선은 노출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피폭량은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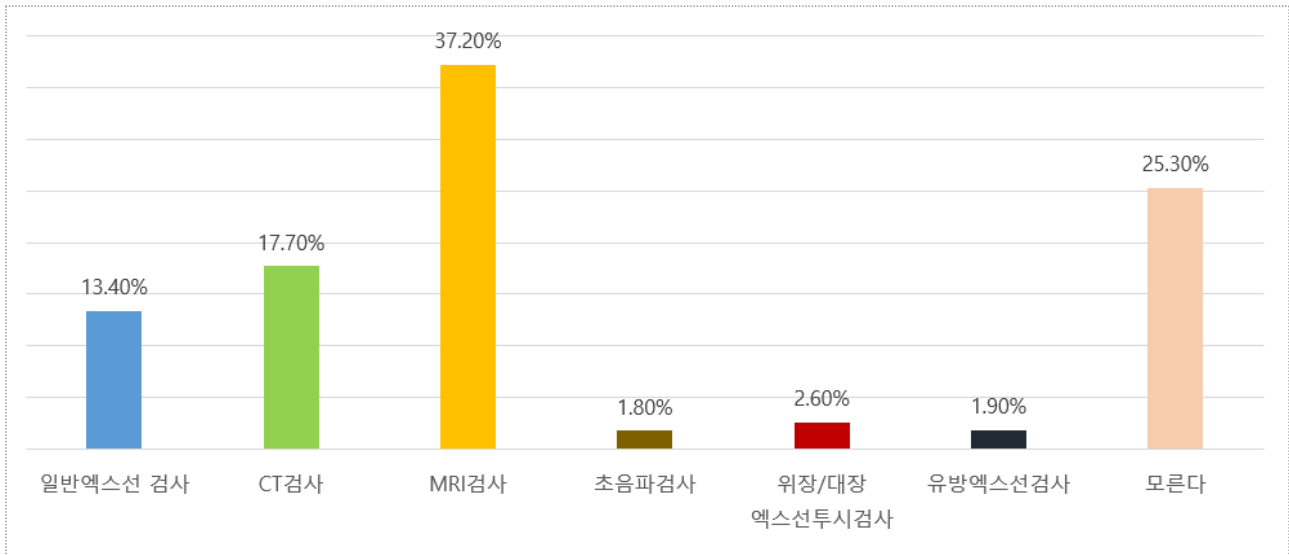
☞ 아니다 또는 모른다 21.8%



○ ‘영상검사 중 가장 많은 방사선이 나오는 검사는 무엇인가?’

☞ 자기공명영상검사(MRI) 37.2%, 컴퓨터단층검사(CT) 17.7%, 모른다 25.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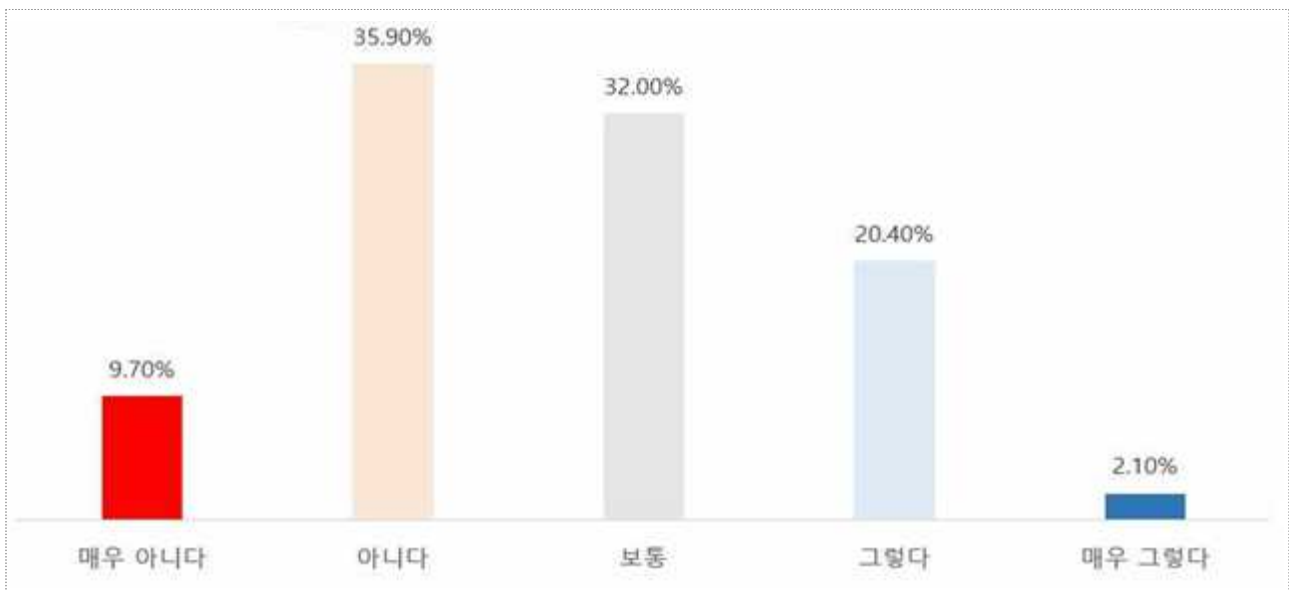


4. 의료방사선의 정보제공

○ ‘방사선 검사 시 방사선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있다’

☞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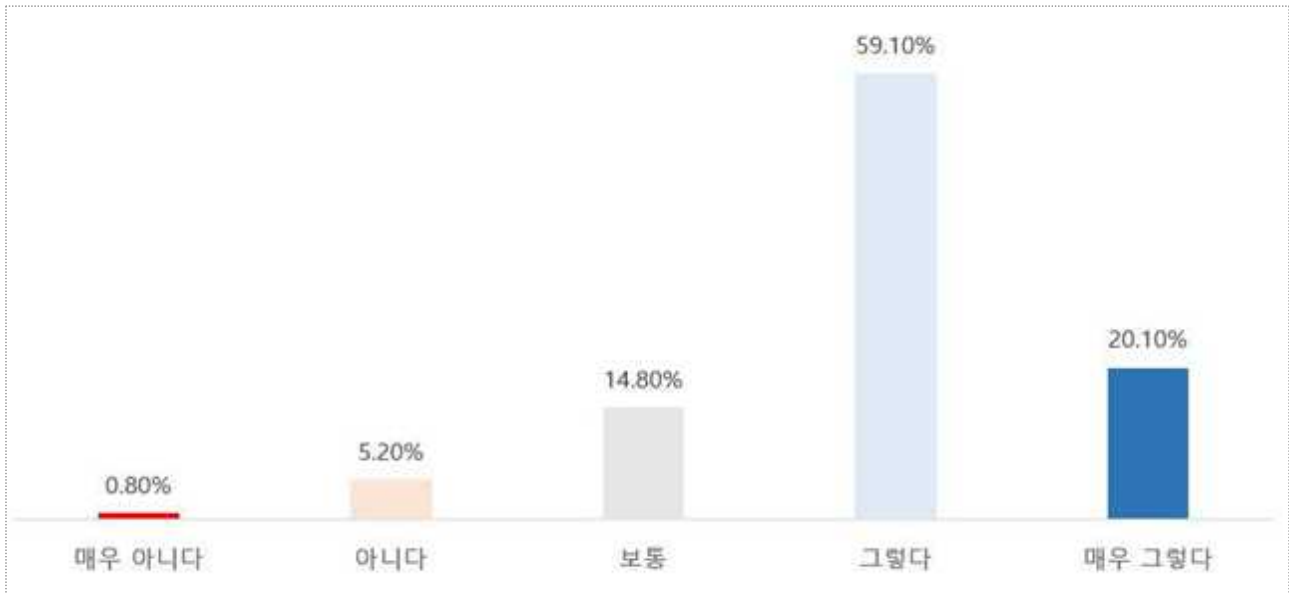
(단위 : %)



○ ‘의료방사선 검사가 끝나면 내가 받은 방사선량에 대해 알고 싶다’

☞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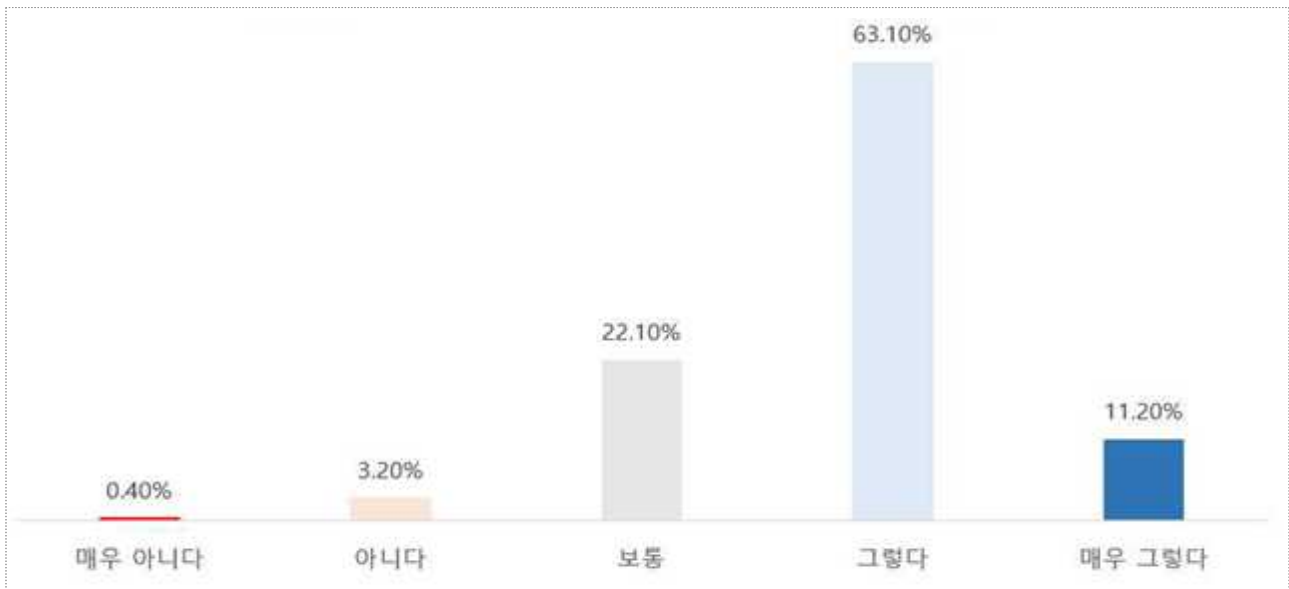
(단위 : %)



○ ‘의료방사선 검사의 방사선량을 안다면 검사를 신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74.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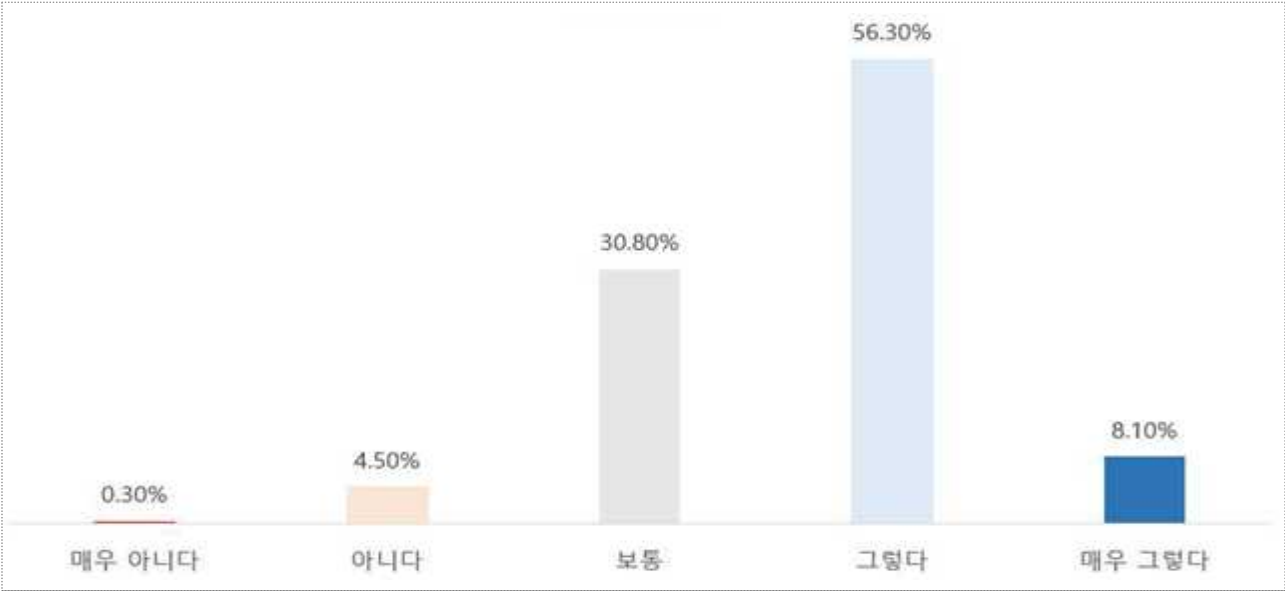


5. 의료방사선의 관리성

○ ‘의료방사선은 규제와 제도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

☞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64.3%

(단위 : %)



붙임 2

의료방사선 대국민 홍보자료동영상, 리플렛,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포스터



□ 리플렛

[illegible]

□ 카드뉴스

2023. 6. 28.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 너를 파해친다!

의료방사선은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하다!**
- 코크리تنا**나 **납**과 같은 물질로 **막을 수**가 있다!
- 방사선 노출 **시간**이 **짧을수록** **피폭량**은 **줄어든다!**
- 한번에 받는 방사선량과 같은 양을 **나눠 받으면** **위험성**은 **줄어든다!**

1/6

2023. 6. 28. 질병관리청

방사선 기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정부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정부기관에서 검사실의 환경을 처음 설계 허가부터 주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기적인 성능평가

사람에게 방사선 피폭을 줄 수 있는 기기들은 특수요량비로 분류하여 주기적인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6

2023. 6. 28. 질병관리청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MRI, 방사선 피폭이 될까?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방법으로 방사선 피폭이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는요?

초음파도 소리를 이용한 검사방법으로 방사선 피폭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 다행이네요!

3/6

2023. 6. 28. 질병관리청

내가 검사 받은 방사선의 피폭량 단위는 어떻게 될까?

방사선의 피폭 단위는 밀리시버트(mSv)

밀리시버트는 인체에 얼마 만큼의 영향이 미쳤는지 알 수 있는 단위

nSv 나노시버트	μSv 마이크로시버트	mSv 밀리시버트	Sv 시버트
= 1,000 nSv	= 1,000 μSv	= 1,000 mSv	= 1,000 Sv
	= 1,000,000 nSv		= 1,000,000 μSv
		= 1,000,000,000 nSv	

μSv는 nSv의 1000배!
mSv는 μSv의 1000배!
Sv는 mSv의 1000배!

4/6

2023. 6. 28. 질병관리청

방사선검사의 피폭량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의료기기의 피폭량

흉부X레이	0.05 mSv
흉부CT	약 6 mSv

방사선에 의한 암 발병률은 한번에 100 mSv에 피폭 될 때 **0.5% 증가**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에서 100 mSv를 한번에 다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체에 영향은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5/6

2023. 6. 28. 질병관리청

방사선이 무서워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머리를 다쳐 두통이 없는 아이, 방사선이 무서워 CT 검사를 안한다면?
머릿속에 출혈을 발견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는 아이, 방사선이 무서워 흉부 엑스선검사를 안한다면?
폐렴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이 무서워 건강검진 받지 않는다면?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6/6